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  
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  
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  
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  
당자 알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483호

서기 2004년 7월 21일  
(음력 6월 5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 29

## 모두의 마음속에 사계절 없는 봄이 와야

▲스님: 확실히 봄이 온 것 같죠? 확실히 봄이죠?  
▲대중: 예.  
▲스님: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사계절 없는  
봄이 와야 되겠습니까. 아시겠죠?  
▲대중: 예.

▲스님: 사계절 없는 봄! 마음속의 봄맞이! 여  
러하게 봄을 확보할 수 있는 봄맞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50%의 맛을 모른다면 물질계  
의 50%에서 허덕거리다가 꺼져버립니다. 영원한  
것이 뭘지 허망한 것이 뭘지 그것조차도 가늠 못  
하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벗어날지 못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살아계실 때에 모든 상  
태가 있고 인연의 법칙이 있고, 이런 반면에 공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없다면 더하고 탈함  
도 없기 때문에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선지식들께서 망상과 졸음 그 두 가지  
를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관(觀)할  
때는 반드시 졸지 말아야 하고 망상을 하지 말아  
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망상과 졸음을 얘기한  
다면, 그 졸림과 망상이 난다는 걸림에 걸려서 한  
발짝도 떼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  
면, 잔다 자지 않는다가 붙어서는 선(禪)에 즉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망상이다, 망상이  
아니다라는 게 붙으면 거기 직결되지 못합니다.

물론 초발심(初發心) 때는 자경문(自警文)도 읽고  
계율도 엄하게 지켜야 하고 또 망상도 물리치  
고 졸음도 물리쳐야 되겠지요. 하지만 처음부터 우

거서 일어나는 대로 수없이 일어나는 마음에 왜  
간섭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깐 일어나는 대  
로 모든 것을 그 불바퀴에 놔라 이겁니다. 고정된  
이 없이 돌아가니까 주인공입니다. 모든 것이 주  
인공에서 나오는 거니까 '주인공에서 해결할 수  
있다. 주인공에서 낳게 할 수 있다. 주인공에서 이  
끌어줄 수 있다. 나 아닌 나가 있다고 깨닫게 하는  
것도 주인공이다.' 하고 진실하게 구하고 진실하  
게 내가 있다는 소식을 가져오게 하는 거지, 이것  
이 벌써 풀린다 하면 풀리지 않은 게 따라붙고, 망  
상이다 하면 망상이 아닌 것이 따라붙지요.

이러니깐 수박을 놓고선 아무리 이리저리 굴려  
봐도 도무지 그 수박의 맛이 나오지 않고, 찰째로  
과거의 씨가 현실의 씨가 됐다는 그 사실을 모르  
고 씨를 찾으려고 자꾸 과거로만 돌아가려고 하  
는 그런 현상만 생기는 겁니다. 이 모두가 생각해  
보면 사람의 한생각에 몰락 벗어날 수가 있는 겁  
니다. 돈오다 짐수다 할 것이 없이 말입니다. 그것  
도 이름일 뿐이지만.

여러분께서 스스로 나와 내가 상봉을 해야 그  
때부터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번째, 초발심에도 죽어야  
하고 둘째도 죽어야 하고 셋째도 죽어야 한다. 내  
가 항상 그런 말을 하죠. 내 집의 전화부터 놔야  
남의 집에서 전화도 오고 남의 집으로 전화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통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아니 내 집에 전화도 놓지 않고 전화

### 진실한 일념으로 구해야 구해지지 진실한 일념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그 소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리가 살아나가는 관습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옛 초사들의 뗏 발자취를 쫓  
아기도 아니 되고, 못났든 잘났든 자기 발자취가  
얼마만큼이나 됐다. 한 짝이 크고 한 짝이 작으니  
까 한 짝을 얼마나 키웠나 하는 것입니다.

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불바퀴는 돌  
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네 생활도 다 돌아가고 있습  
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색  
(色)과 공(空)은 돌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처음부터 졸음을 금하  
면서 칼을 목에다 대고 하느니라 모든 것이, 자  
는 것도 깨는 것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몽땅 생활  
자체가 그대로 참선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  
나 그 이전에, 그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나로 인해서 세상이 벌어진 거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나로부터 벌어졌으니  
까 나로부터 알아야 하지 않나. 풀린다, 풀리지 않  
다, 졸음을 쫓아야겠다 하는 것도 거기 놓고 돌아  
가는 그 자체가 바로 직결로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이 나라는, (가슴을 짚어  
보아시며) 이 혹성의 본래자성불(本來自性佛)은 그  
대로 돌이 아니게 열려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럼으로써 감응이 되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이 말을  
또 해야 되겠군요. 말하자면 '부모에게 몸을 받는  
다' 하는 것은 집만 받는 겁니다. 자기 나오기 이전  
영혼과 나오기 이전에 살 때에 악업 선업을 지은 그  
인연들이 전부 내 몸속에 들어 있습니다. 몸속으로  
한데 부합이 됩니다. 부합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중  
생들은 잘되고 잘못되고 그걸 모릅니다. 악업 짓고  
선업 지은 그 인연에 따라서 독 안에 들어도 못 면  
하게 그것만이 아주 입력이 돼서 현실로 착착 나옵  
니다. 현실로. 그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사람도 죽이  
게 하고, 강도질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되고, 또는 선  
한 일도 하게 하고, 욕도 하게 하고, 화도 나게 하고,  
병도 오게 하고, 애고도 오게 하고,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다가오는 그 모든 고통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녹일 수 있는가! 이  
주인공에 놓는 것을 용광로에 녹인다고도 하고,  
불바퀴에 닿지만 하면 탄다고도 합니다.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

을 때를 바라고 전화할 것을 원하고 있으면 그걸  
뉘니까? 천년만년 있어도 안 됩니다.

내가 어두우면 불을 켜는 법이요. 또는 없어서  
고생을 하면 일을 하는 법이요. 안 그렇습니까?  
풀리면 자는 법이요 배고프면 먹는 법이요 풍이  
마러우면 소풍이 돼야 하나가 풍을 누는 법이요.  
거기 무슨 이유가 불습니까. 이 모두가. 망상이다  
망상이 아니다라는 게 붙으면 직결로 들어갈 수  
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조들께서는  
진실하게 일념으로 구했습니다. 진실한 일념. 진  
실한 일념으로 구해야 구해지고, 진실한 일념으  
로 구하지 않는다면 '나' 라는 자체에 있다는 그  
소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삼천대천세계 우주의 근본 자체를 외국에서  
말하는 거는 불백출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  
처님께서는 불바퀴라고 했습니다. 이 전체로 말  
할 것 같으면 불바퀴요 또는 전체가 돌이 아니면  
서도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 개인  
혹성 하나가 바로 또 불바퀴라는 얘깁니다. '불바  
퀴 자체가 공(空)도 아니고 색(色)도 아니요' 한 것  
은 색과 공이 돌이 아니게 돌아가니까 하는 소립  
니다. 지금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돌아가고 같  
이 작용을 하지, 물질계는 물질계대로 놓고 정신  
계는 정신계대로 놓니까? 안 그렇죠? 생명이 있  
니까 사시죠? 생명이 있으니까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몸이 움직거리죠? 이것이 바  
로 동시에 같이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  
문에 내 몸뚱이에 혹성 하나가 깨어났으면 있지  
만 포괄적으로 볼 때는 개개인으로 있는 것이 하  
나도 없다. 불바퀴가 쉬지 않고 여여하게 화(化)해  
서 돌아가는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 우리 조그마한 마음, 질 수도 없고 볼 수  
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그 마음이 우주 전체에 직  
결이 돼 있다는 그 사실, 또 이 세상살이 살림살이  
전체가 가설이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서  
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  
예요. 모든 일체 만물만생이, 보이지 않는 중생이  
나 보이는 중생들이나, 보이지 않는 부처나 보이  
는 부처나 모두가 포괄적으로 통하고 공생(共生)  
공용(共用) 공제(供體) 공식화(供食化) 하고 돌아



그림 · 최주현

고 있습니다. 통하고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공생이며 공용이고, 공용이면 바로 공식화하고  
공식(供心)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불교입니다. 불교는 어디 국한돼 있는 게 아니  
라 포괄적인, 끝간 데 없는 진리를 이룸해서 바로  
불교라고 한 겁니다. 불교라고 하는 이름이나 부  
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나 돌이 아닐 것입니다.  
부처님도 어떠한 것을 내가 했다고 할 수 없고 어  
떠한 생각을 내가 했다고 할 수 없고, 어떤 말을  
내가 했다고 할 수 없기에 부처라고 한 것입니다.  
부처라는 이름이 없는 것이 부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고 깨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들  
이 삶에 의해서 질서를 지키고 모든 일들을 문란  
치 않게 하고,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적으로나 모  
든 일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지만 이 진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도 초월된 자리로 발과 낮도 초  
월된 자리로 여자와 남자도 초월된 자리로 동 서  
도 초월된 자리입니다. 높고 낮고도 초월된 자리입  
니다. 옛날에도 그런 말을 했지요. "공동묘지에 가보  
니가 남녀노소가 없더라. 남녀노소도 없고, 마음  
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두 높았더라." 이  
런 말을 한 얘기가 있지요.

여러분 중에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일반  
적으로 내가 말한 하면 여러분 가슴에 채워지지  
않을까봐 질문을 하시라는 겁니다.

▲질문자(남): 스님! 스님께서 항상 마음공부  
하는 법을 가르쳐주시고 항상 이끌어주셔서 열심  
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저는 스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걸 믿고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자꾸  
괴롭거든요, 마음이, 중심 잡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도, 많이 괴로운데 이렇게 괴롭지 않  
고 공부 잘하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

▲스님: 이거 봐! 대신 통 뉘주는 사람이 없을  
테고, 대신 밥 먹여 주는 사람 없을 테고, 대신 죽  
여주는 사람 없을 테고, 대신 아파주는 사람 없을  
테고, 대신 자를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것은 자기  
나 보이는 중생들이나, 보이지 않는 부처나 보이  
는 부처나 모두가 포괄적으로 통하고 공생(共生)  
공용(共用) 공제(供體) 공식화(供食化) 하고 돌아

않은 입력을 하란 말이야. '내가 있다면 괴롭지  
않게도 할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 입력을 해, 알  
아들것어? 그러면 앞서의 입력한 게 없어져버릴  
거야. 모든 것이 다 그래.

▲질문자(남): 감사합니다.

▲질문자(여): 저는 얼마한테 스님에 대한 말씀  
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책을 보고 있  
는데, 자고 일어나면 자꾸 입안에서 피가 나고 잇  
몸이 쨍지를 알습니다. 스님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스님: 이거 봐, 지금도 얘기했지. 내가 도와줘  
서 될 일이라면, 내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원한다  
면 서로 한마음으로 응(應)해줄 수는 있다고. 그러  
니까 모든 것을, 너 한마음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놓고, 거기서만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그  
기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믿어 봐. 이 '참  
나' 라는 거는 높고 낮고도 없고 여자 남자도 없  
어, 너도 예전에 늙었다가 또 어린애로 태어났을  
테니까 믿어봐. 알아들었어?

모든 사람의 그 한마음 속에 약사도 있을 테고  
관세음도 있을 테고 아록도 있을 테고, 아미타도  
있을 테고 또는 지장도 있을 테고 용신 · 지신 ·  
산신 · 독성 다 있을 거야. 한생각에.

▲질문자(남): 스님께서 참나를 찾는 게 중요하  
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유  
체와 육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유체가 진  
정한 참나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스님: 허허허, 참 영롱한 소리 하고 있네. 아,  
유체는 뭐고 무체는 뭐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무체와 유체가, 무심(無心)과 유심(有  
心)이 다 한꺼번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질문자(남): 제가 더불어 한 가지 더 알고 싶  
은 거는 제 육신이 있고, 제 육신 안에 그 전생에  
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또 하나의 혼(魂)이 있어  
가지고 혼이 제 육체를 빌려서 하는 게 아니냐 하  
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이 진정한 저  
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스님: 혼(魂)이라는 것은 업식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참나의 본래자성불(本來自性佛)이란 더하

고 탈함도 없고 움직거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서도 그 능력이 광대해서 그대로 여여하게 돌아가  
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든 악업 선업의 중생들, 상구보리(上求菩  
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  
듯이 위로는 참자기를 섬기고 아래로는 자기 몸뚱  
이 속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라, 그것부터 제도하  
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돌로 보지 마  
십시오. 혼백이다, 무슨 생명이다, 무슨 나다. 이런  
걸 다 초월하십시오.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거  
리는 게 다 거기서 동시에 나오는 거니깐요.

▲질문자(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질문자(남): 분별, 망상에 대해서 큰스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셔서 그 동안 제가 생각했던 한 가  
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하다보니까 스님  
말씀대로 많은 망상이 나오고 그러는데, 순간  
가 느껴본 것은 '망상이 있기에 보리(菩提)에 접  
근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자리, 즉 한마음 자리에도 모든 것을 놓  
고 맡길 때 보리가 썩는 것이며 또한 분별이라  
고 하는 그 자체도 망상도 바로 보리로 가는 하나  
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른 생각인  
지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그렇게 해 나가세요. 이 망상이라는 것  
도 이름입니다. 망상이라고 생각하면 망상일 것이  
고 망상이 아니라고, 즉 말하자면 '망상이 없으면  
아, 우리가 목적이지만 발전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  
게 생각한다면 망상이 아닙니다. 모두가 발전으로  
써의 계기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된 게 하나  
도 없으니까 마음도 그렇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  
고, 발전할 수 있고, 창조력을 기를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망상이다 뭐다 하는 것도 모든 것을 생  
각하는 대로, 즉 말하자면 좌선이다 입선이다 좌선  
이다 행선이다 하는 것을 초월해서, 일할 때나 잘

# 일어나는 대로 모든 것을 불바퀴에 뇌라

29면에서 계속

때나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모든 걸 막론해놓고 그놈이 있으니가 하지, 들고 내고 하는 놈이 그놈이다. '그놈은 또 무엇인가?' 이리저리 따지고 '그놈이 있다' 라는 거를 전제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그놈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 '무엇인가?' 또 끝납니다. 그러니까 맛도 못 보고 작년 씨가 울로 이렇게 온 거를 모르고 작년 씨 찾다가 해다 보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질문자4(남):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늘 생각 해왔는데요. 물론 이렇게 시간이란 개념을 떠나서 스님 법문을 듣고 공부할 은 가족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데, 한편으로는 제 자신의 공부하는 내용과 제가 뭘 얻었다는 개념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좀 점검해보고 싶는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경계가 부단함에 있어서, 주위 사람들이 도반으로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경계가 크게 온다' 또 어떤 사람은 '경계가 작게 온다' 그러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경계가 크게 왔을 때 큰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냐? 틀론 조그만 큰 것 할 것 없이 전부 넣어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공부가 돼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편으로 잔잔한 바다같이 순항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는 이것도 또한 바르케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또 큰 경계가 와야 크게 깨닫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경계의 크고 작음과 더불어 깨달음의 그러한 정도가 꼭 경계의 크고 작음에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스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가고 있다고 느끼고 큰 경계가 없음을 또 기뻐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게 공부가 이뤄질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담보 상태인지 그게 구별이 잘 안 가서 여쭙어봅니다.

▲스님: 세상에 공안 아님이 없고 부처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듯이 모든 경계에 떠달라지 마세요. 이 모두가, 내가 부처를 이루겠다 해도 아니 되고 내가 안 하겠다 해도 아니 됩니다. 그저 내 앞에 딱진 거 마다하지 말고 가는 거 잡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한데 뭉쳐놓는 그런 작업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질문자4(남): 저의 가슴에 항상 불이 와서 갑사합니다.

▲스님: 하하하.

▲질문자5(남): 법문을 듣다가, 테이프를 법문을 듣다가 의심이 나서 스님께 물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희들 일체 중생이, 또 우주 만물이 이 름은 다 각각 달라도 하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윤회 법칙에서 본다면 육도사생(六道四生)이 윤회할 때에, 만물 중에는 유정물과 무정물과 동물 식물 일체가 다 포함되는데, 육도 사생으로 본다면 유정물이기 때문에 어떤 식(識)이 있는 세계

로서의 윤회 법칙이 성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님 법문 중에 산에서 고행하시는 중에 어느 나무 한 그루가 움직이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 자체의 그이 전 세계를 보니까 물 속에 있는 어류 중생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일체 중생이 하나라고 하지만 윤회 법칙에 의해서 분명히 동물과 식물이 구별이 되고 또 동물이 식물 된다는 그런 윤회의 법은 못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동물과 식물이 구분이 되며 동물은 여전히 동물로만 진화하는 윤회 법칙이 성립하는가, 아니면 어류가 나무가 되듯이 식물도 될 수 있는가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스님: 옛날에 어느 사람이 죽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의식만 가지고서 가다보니깐 어느 나무에 도달했답니다. 그래서 목신이 되었답니다. 그 마음과 그 마음이 한데 합쳐서 말입니다. 이게 모든 게 없는 소리가 아니라 모두가 사생(四生)·육도(六度)·만행(萬行) 하는 것이 다 그냥 그대로 한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려면요. 책으로 알리고 하지 말고 그것을 '너만이 가슴을 짊어 보아시고 일러줄 것이다. 너만이 알 것이다.' 하고 모든 걸 거기다 놓고 가세요. 이것은 글자 공부하고 이론 공부하고 또는 지식 공부하고 경서 공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 답이 나옵니다.

▲질문자5(남): 예,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질문자6(남): 저 선원에 나오기가

지는 저희 식구의 권유가 좀 있었습디다. 그래서 무조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제가 계속 오고보니 나왔습니다마는,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솔도 좀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좀 있었습디다마는 나오게 되면서 그런 것이 일체 끊어지고 '무조건 선원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오게 되는데, 선원에 들어서면 웬지 모르게 마음이 상당히 고요해져서 우선 눈물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저와 같은 경우가 있겠습디다마는, 웬지 모르게 저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큰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다보니까 제 자신이 현재 가고 있는 마음의 점검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무자정 나왔습디다.

▲스님: 하하하, 점검을 별로 점검을 할까요? 고요한 마음이니깐 된다. 안팎이 없는 고요한 마음이 되어서 되겠지요? 집에 있으면 번뇌가 하나 여기 절에 오나, 하여튼 당신이 있는 곳마다 부처는 계시니깐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부처는 있는 겁니다. 당신이 없다면 모두가 무효죠. 그러니까 당신을 끌고다니는 당신 주인에게 모든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맡겨놓으셔서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용도에 따라서 따치는 대로, 그저 가난하면 열심히 지극하게 벌이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약한 거든지 섣한 거든지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 탓으로 돌리면서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 이 공부하는 데는 적격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내 탓이지 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뭐가 탓이 될 게 있습디다, 부단점이 뭐가 있고? 그러니까 잘했든 못했든 내 탓이죠. 그거를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잘못했으니 하고 따지게 된다면 그거는 이 선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몸뚱이가 떨어지기 전에 모든 도리를 알아서 증득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론으로만 알고 말로만 알고, 그저 설법을 강백으로서 여여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아닙니다. 내 몸 떨어지기 전에 열심히 하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몸 떨어지고 입 떨어지고 말 떨어지면 뭐 남는 게 있겠습디다? 그러니 열심히 하십시오.

이 공부는 가난하다고 해서 못 하는 공부 아닙니다. 못해서 못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모두가 육신 장애자보다도 정신 장애자가 많으니까, 그 정신 장애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인간으로서 자유스럽게 살자는 뜻입니다. 부처님도 내내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계시고요. 한 말도 한 예가 없고 한 생각도 한 적이 없고 또는 한 가지도 자기가 한 예가 없기 때문에 이날까지 하시는 겁니다. 끝간 데 없이 말입니다. 어저께 오늘 내일이 없이, 중간도 없이 열심히 하세요.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잘 해나가신다니 감사합니다.

▲질문자6(남):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질문자7(남): 저는 공부가 부실해서 그런지 제가 말 듣기로는 '저승 가서 만나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제 내자가 본원(本院)과 대구지원에 한 3년 살다가 지금 그만 남원당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저승에 가서라도 산 세상과 같이, 대구 부산 서울 이런 데 모양으로 꼭 만날 수가 있을는지, 말 한 마디도 없이 갖기 때문에 대행 스님께 한 말씀 여쭙보려고 여기 올라 왔습니다.

▲스님: 인생은 모두가 만났으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납니다. 그것은 왜하면, 한 사람을 만났으면 고정되게 그냥 똑같이 또 살고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캄캄 나왔다가 한 쉼 나는 겁니다. 그렇듯이 구름이 한데 합쳐졌다가 또 그 구름이 증발해서 비로 내리고, 화(化)해서 비로 내렸다가 또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또 비로 내리고 모든 일체 만중생들이 다 너 나 할 것 없이 용도에 따라서 다 먹어서 부분이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구름이 한데 모였다 흩어지면 또 댄 구름하고 또 모입니다. 댄 구름하고 모이니까 착을 두지 마십시오. 한철 같이 친 구름이 이렇게 지냈을 뿐이지 거기다가 착을 두진 마십시오. 몸이 죽었다 하더라도 거사님 마음 속에, 한마음 속에 다 있는 거고 일체제불의 마음도, 일체 조상의 마음도 일체 중생의 마음도 모두 내 한마음에 있다 생각하면 가깝게, 형시 끝간 데 없이 가깝게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착을 두고 멀리 돌로 보지 마십시오.

▲질문자7(남): 대단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55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자는 것도 깨는 것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 몽땅 생활 자체가 그대로 참선이라 생각해야



그림 · 최주원

### 佛經漢文科

▶ 동신반 · 출석반 募集 ◀

1. 募集期間 ▶ 후기: 7월 15일 ~ 8월 15일(기간임수)
2. 教育科目 ▶ 무량인경(漢文本)  
▶ 묘법연화경(漢文本)  
▶ 판 · 보연보살 영법경(漢文本)  
▶ 교양인문(생활인자 5,000자)  
▶ 간체자(중국어)  
▶ 기타교양과목(특강)
3. 教育期間 ▶ 3년(6학기)
4. 教育方法 ▶ 동신반 · 출석반 동일  
▶ 매주교재와 강의테이프 우송(통신반, 출석반 동일)  
▶ 월1회 출석특강(통신반)  
▶ 출석반 주 1회 출석(대구, 부산지역)

\* 본 연구소에서는 불경공부와 수행이 일음일미로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5. 畢業惠澤 ▶ 畢業證書 수여  
▶ 한자원리지도사 자격인증서 수여(심사후)  
▶ 전문 연구과정 수강자격 부여
6. TEL (053)952-8711 / 017-501-8711  
▶ 자세한 입학 안내서는 청구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社) 國際語文研究所  
所長 · 哲學博士 崔光永  
우편: 대구시 동구 동대구우체국 사서함 41호(우 701-600)

- 매일경제신문 인제 경영학 연재 -

###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부할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물안데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져나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욱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체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엔액 결식법**

풍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구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속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로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져나가는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기 않으면 순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엔액은 우리몸에서 지만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액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록원 (발보효소)**

## 30년 한결 같은 도반, 월간 불광

창조적인 생활인을 위한 교양지 월간「불광」은 30년간 불자님 결을 지켜온 가장 오래되고 자부심 높은 불교잡지입니다.

http://www.bulkwang.org

구독신청 문의 420-3200